



정교회주보

제2490호

2024.09.15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세계의 정교회 수도원> 일명 '루마니아 정교회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네암츠 수도원(사진)은 15세기 그리스도 승천 수도원으로 건립되었으며 전형적인 중세 몰도바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다. 도서관은 6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하며, 소장 도서 11,000여 권 중에는 다수의 희귀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날의 수도원은 본원과 주변 지역의 7개 스키터로 구성되어 있다.



십자가 현양 축일 다음 주일
성 니키타스 대순교자
(제3조 • 조과복음 1)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3조 부활 찬양송 82
 - 십자가 현양 축일 찬양송 191
 - 성당 찬양송
 - 십자가 현양 축일 시기송 191
 - 사도경 : 갈라디아 2,16~20 (봉)295
 - 복음경 : 마르코 8,34~9,1 197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너희도 나를 통해 살 것이다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가장 심오하고 내적인 가르침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마지막 만찬 다음에 위치시킵니다.(요한 13,33)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식탁에 앉게 될 때, 사람들에게 주신 그 생명과 내가 연합될 때, 그다음 비로소 지금까지 유보되어 왔던 어떤 말씀을 듣는 순간이 내게 옵니다. 친구의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는 자신에 대해 나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고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비는 본질적으로 이 '아버지-아들'이라는 관계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정교회출판사] 중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안토니오스 임종훈 신부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 기도주일 예배’(8/11)에서

주님, 우리들에게 맑고 평화로운 종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넓은 들판 꽃향기 넘쳐나는 봄의 세상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거친 사자와 여린 사슴이 함께, 거룩한 첫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며 봄을 기다리는 겨울 세상은 하느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대지를 적시는 은총의 땅이었습니다.

마침내, 첫 사람이 타락하자 뒷 사람이 타락하였고, 그들은 하느님의 땅에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서로에게 들리지 않았고, 서로는 서로를 살육했습니다.

슬퍼하시는 주님께서서는 죄악이 넘치는 세상에,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피를 흘려 종탑을 세우시고, 육신을 죽여 종을 달아매시고, 침묵으로 사람들에게 종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의 종소리는 대지 끝까지 달려 나갔고, 종소리는, 순수와 신성과 평화를 찾아 세상의 끝으로 내몰려 겨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맑고 평화로운 종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종탑이 없는 세상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온 세상에는 살육이 번져 있습니다. 미얀마 땅에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배다른 형제가 배다른 형제를 살육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지으신 거룩한 창조 세상에서, 살육은 피가 마르지 않는 습한 강물이 되어 혈관처럼 대지에 박혀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 한

반도는, 하늘을 올려보면, 같은 겨레붙이를 증오하는 조롱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뜨거워져 높이 올라가고, 저주와 모욕의 더러운 냄새는 차가워져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 폭력을 폭력으로 갚으려고 군대가 이 땅으로 건너오고 있고,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뿜내는 무기는 깊은 물 속에 숨어 있습니다. 주님, 하늘 높이 화해의 종탑을 세워주십시오. 먼 바다에까지도 긴 그림자를 뻗는 평화의 종탑을 대지 위에 높이 세워주십시오.

증오는, 칼과 총으로 위로받고 있습니다. 불안은, 거짓과 저주를 양식 삼아 자라고 있습니다. 선량한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폭력으로 위로받지 않고, 주님의 성령으로 위로받도록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거짓과 조롱과 저주와 미움이, 마음과 정신의 양식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주셔서, 주님의 맑은 종소리에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종탑이 없는 세상에서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종탑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순종하는 종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첫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하고, 웃고,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러나 첫 사람은 세상에 맨처음 죄를 들여왔고, 우리는 모두 죄짓는 후손이면서도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첫 사람은 아버지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누구도 하느님의 빛과 정의와 사랑에 감탄하지 못합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느님의 계명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 땅 한반도에 주님의 정의와 계명이 처음 비추었을 때부터 순종하며 살아온,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3면으로 계속)

코로나 기간에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이야기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이탈리아에 93세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뒤에, 이제 집에 돌아가기 위해 퇴원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으로부터 그간 사용한 산소호흡기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노인은 왈각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돈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형편에 따라 사정을 고려하여 감액해 드릴 수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울음을 그치시라고 어르신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고, 이는 의사와 간호사 등 그를 치료해준 모든 사람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치료비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낼 여유는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쏟은 것은 지난 93년 동안 하느님이 주신 공기를

호흡하면서도 한 번도 그에 대해서 돈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산소 호흡기 하루 사용료로 500유로를 내야 합니다. 제가 하느님께 얼마나 큰 신세를 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에 대해서 한 번도 그분께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의 말은 우리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우리가 질병이나 고통 없는 상태에서 숨을 쉴 때, 우리 중 누구도 그 공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마워하며 들이마시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병원에 갈 때만, 인공호흡기를 통해 들이마시는 산소에 대해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공짜로 숨을 들이쉴 수 있도록 공기라는 큰 선물을 주셨으며, 그보다 더한 것도 무상으로 거저 주시는 하느님께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2면에서 계속)

형제가 형제를 살육하고, 이웃이 이웃을 살육하는 비극이 똑같이 이 땅에서도 전개되었을 때, 주님께 순종했던, 이 땅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종소리를 기다립니다. 거룩한 자녀들은 맑은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하루의 낮과 밤 동안, 외롭고,



고통스럽고, 잠들지 못합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은 사랑의 힘을 기억하며 힘겹게 십자가를 기어 올라갑니다. 주님의 종탑 아래로 낮게 드리워진 희생의 줄을 잡아당깁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께 순종하는 종지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평화롭고 맑은, 화해의 종소리를 이 땅 위에 울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간 예배 안내

* 9월 17일(화)

추석 맞이 성찬예배 (서울성당)

추도식 (모든 성당)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추도식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풍요로운 한가위되세요!

■ 교회 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올해 묘지 관리비를 아래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비는 10만 원입니다.

-우리은행 077-041887-01-103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알림

■ 심포지엄 개최 안내

정교회, 천주교, 개신교(NCCK) 공동 주관으로 AI(인공지능)와 그리스도교에 관한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날짜: 9월 27일(금) 오후 2시

• 장소: 명동대성당 고프스트홀

• 주제: AI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관점: 봉사자인가, 지배자인가?

• 연사: 정교회 니콜라오스 대주교(메소게아&라브레오티키 대교구), 천주교 한창현 신부, 개신교 신익상 목사

■ 대교구 설립 20주년 기념 성찬예배

다음 주일(22일)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두 분의 대주교와 여러 신부들의(서울, 인천, 춘천, 수도권) 공동 집전으로 거행됩니다.

예배 후에는 한국 선교사들을 위한 추도식, 축일 오찬,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많은 참례 바랍니다.

영성의 샘터

망각, 나태, 욕망의 함정

영혼의 영적 전쟁을 깊이 탐구한 스승들의 결론은 이랬다.

“사탄은 하느님의 피조물을 죄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세 가지 방법을 쓴다. 망각, 나태, 그리고 나쁜 욕망이다.

망각이 영혼을 지배하게 되면 즉시 나태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나태는 다시 나쁜 욕망을 만든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하느님을 망각하지 않고 또 현세에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그리 쉽게 잊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 안에 등지를 트는 비이성적인 욕망에 우리가 휩쓸리도록 결코 가만 놔두지 않으실 것이다.”